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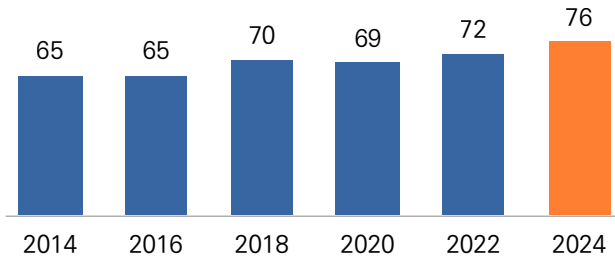


[부부관계 만족도 변화 추이]

부부관계 만족도, 4명 중 3명으로 통계청 조사 이래 최고치!

- 통계청의 최근 사회조사 결과 중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, 즉 부부관계 만족도 결과가 흥미롭다. 2014년 부부관계 만족하는 비율은 65%였는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76%로 최고치를 기록했다.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기혼자가 4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얘기이다.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높아지고 있는 부부 만족도는 결혼에 대해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
[그림] 부부관계 만족도 (13세 이상, '매우+약간 만족한다' 비율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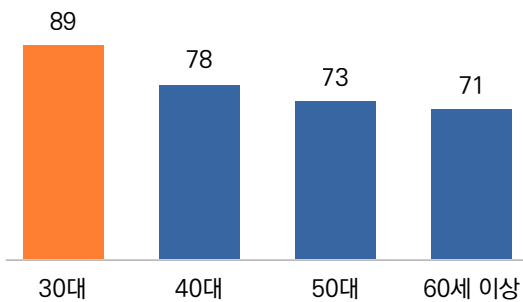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24년 사회조사 결과, 2024.11.12.

*5점 척도

부부관계 만족도, 3040세대가 5060세대보다 더 높다!

- 연령별 부부관계 만족도(30대 이상)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30대가 89%로 가장 높고, 60대 이상이 71%로 가장 낮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, 특히 3040세대 부부관계 만족도는 5060세대 대비 크게 높아 주목된다.

[그림] 연령별 부부관계 만족도 (2024, '매우+약간 만족한다' 비율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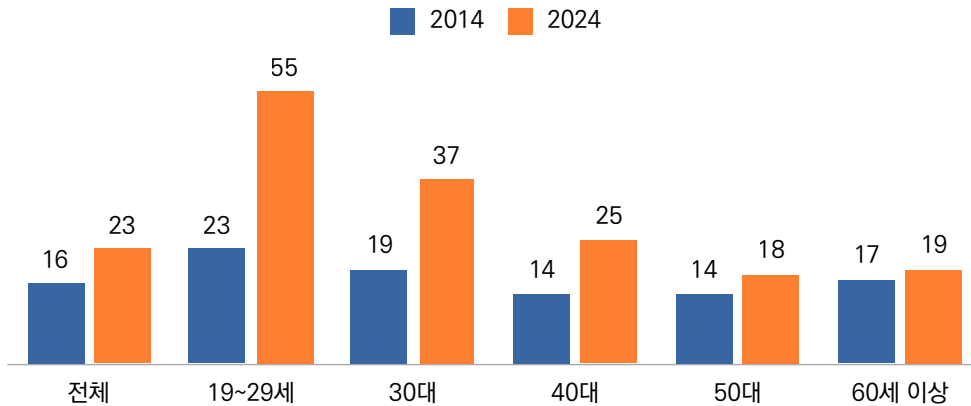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14~2024년 각 연도별 사회조사

*5점 척도

아내의 '부부 가사 분담 공평' 인식, 20대는 절반 이상(55%)!

- 이처럼 부부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'공평한 육아/가사 분담의 증가' 때문이라는 추측이 가능
한데, 실제 '우리 부부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'에 대한 아내의 입장(동의율)을 살펴보았다.
- 2014년 '부부 가사 분담이 공평하다'는 인식은 16%였는데 2024년 23%로 7%p 높아졌고, 아내 연령별로 보면 20
대 아내의 경우 '가사 분담이 공평하다'에 대한 동의율이 절반을 넘어(55%) 가장 높았다.

[그림] 아내의 '부부 가사 분담 공평하다' 인식 (19세 이상, %)

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14~2024년 각 연도별 사회조사